

順天金氏宗報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발행인: 김중식/편집인: 김학원/138-160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8-1번지 한화빌딩 403호/전화: (02) 400-2501~2502/FAX: (02) 400-2505

새로운 歷史를 創造하는 宗親들이 되자!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 첫해에 맞는 중추절을 맞이해서 종친들의 가정과 생업위에 큰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처럼 올 추석이 종친들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큰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 테러로 인한 새천년의 첫 전쟁이 시작되었고 경제적 불안정과 세계 정세가 위태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미국의 테러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국내 정치도 여소야대로 인해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종친들은 첫째, 국가를 생각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재 김종서 할아버지는 수양대군의 칼날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정을 위해서 칠십고령을 바치셨습니다.
 아름다운 피는 국가를 사랑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정신으로 국가 안위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국가가 없는 우리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와 충성을 다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가문을 생각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개인 주의로 흘러서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종친들은 자신 보다는 가문을 생각하는 종친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짧지만 우리들의 가문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순천 김씨 가문은 수 많은 어려운 역사의 골목에서도 조상님들께서는 가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역사에 빛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종친들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를 생각하면서 가문의 명예를 높이는 종친들이 되려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우리가 어떤 꿈과 날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바르게 살때 새로운 역사는 창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서 우리들의 가문이 영원하도록 노력합시다.

국내적으로도 미국의 테러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기다리고 있고 국내 정치도 여소야대로 인해서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종친들은 첫째, 국가를 생각하는 종친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재 김종서 할아버지는 수양대군의 칼날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조정을 위해서 칠십고령을 바치셨습니다.
 아름다운 피는 국가를 사랑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順天 金門의 名教授 名講義

- 김두원 박사: 교양
- 김정일 박사: 교양
- 김영희 강사: 임진왜란과 우리 종친의 활약상
- 김동소 교수: 한국어, 그 바른 적기와 바른 말하기
- 김진섭 교수: 환경과 토양



順天 金門의 來日의 指導者
 第16回 大學生 夏季 教養講座 修了記念
 2001. 8. 9

- 김동택 강사: 사례
- 김명재 실장: 족보에 관하여
- 김춘희 강사: 사례
- 김상욱 변호사: 문중과 나의 관계
- 김승연 교수: 새 시대의 젊은이에게
- 김철영 강사: 순김 약사
- 조원래 학장 } 特講
- 박종렬 교수 }

公 告

順天金氏中央宗親會
 第十二期 定期總會開催 公告

會則第十二條一項에 依據 二〇〇一年 第十二期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함을 公告합니다. (個別通知 省略)

二〇〇一年 十月 五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一、日時... 二〇〇一年 十月三十一日(水) 十一時

二、場所... 서울特別市 江南區三成洞 六四一三 삼성빌딩 二層 한길교회

電話... 五四二一九五五一

전철 7호선 청담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우회전 50m 또는 우회전 7m
 ▼連絡處: 中央宗親會
 ▼電話: 〇二一四〇〇一二五〇一二

三、參席範圍

- (一) 中央宗親會 全任員과 代議員
- (二) 全國地域宗親會 任員과 全宗親

四、議案

- (一) 業務報告
- (二) 第十二期 收入支出 決算報告
- (三) 第十三期 豫算案 審議
- (四) 會則 第三章 第九條에 依據 任員 改選의 件
- (五) 其他 討議事項

全國地域宗親會長께서는 順天金氏宗報가 到着 되는대로 宗親 및 全任員께 널리 連絡하여 많이 參席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리비게트, 진흥APT 2동, 브르방 빵, 4번출구, 5번출구, 한길교회 총회장소, 지하철 7호선, 11번 BUS, 10번 BUS, 포스코, 창암사거리, 전철 7호선



第16期 大學生 始祖墓所 參拜

제16기 대학생 교양강좌 수료자

김은식	017-259-2225	김세아	017-661-3365
김성용	016-691-0158	김미라	016-687-7644
김우호	019-551-2755	김진희	011-9624-9948
서재홍	017-506-0923	김정빈	011-9704-9071
석정엽	011-9599-9534	김성빈	011-9641-6417
김해민	018-792-4466	김혜진	019-509-9949
김경민	011-532-1033	김상희	018-686-1203
김정연	019-558-0830	김선하	016-403-1278

“나의 뿌리”

경북대학교 1학년 김 선 하

“나는 절재공 할아버지의 21대손”

충북대학교 1학년 김 해 민

말 그대로 '쇠도 녹여버릴 듯한' 7월의 폭염 때문이었을까?
 나는 대학에 들어와 처음으로 맞이한 여름 방학초의 귀중한 시간들을 방에서 뒹굴거리며 허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귀중한 7월을 보내고 8월에 접어들었지만 나는 여전히 TV를 보거나 낮잠으로 소일하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이런 나를 보고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곤 매년 문중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교양강좌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초등학교 5학년때 었던가? 분명치는 않지만 어릴 때 아주 흥미있게 읽었던 소설중에 알렉스 헤일리의 '뿌리'라는 소설이 있었다.
 당시 나는 미국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고된 역사를 담은 소설의 방대한 내용에도 놀랐지만 작가 알렉스 헤일리의 '자기 뿌리 찾기'에 대한 남다른 열정은 어린 나의 가슴에도 충격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나의 '뿌리'에 대한 호기심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고 나는 '나의 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10여 년을 지내왔다.
 이런 나에게 있어서 문중에서 시행하는 대학생 교양강좌는 오랜 뿌리에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단비같은 존재였다.
 물론 <환경과 토양>, <국어의 올바른 사용> 같은 강좌는 나의 '뿌리'와는 크게 관계는 없었으나 그런 강좌 역시 유익하고 알찬 강좌였다.
 그러나 역시 나의 눈길을 빼앗은 강좌는 김명재 도감 어르신(의 <죽보공부>)와 김철영 강사님의 <순천김씨약사>같은 강좌들이었다.
 김명재 도감어르신(의 <죽보공부>)강좌시간은 본격적으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시조는 어떤 분이셨는지를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또한 익히 그 휘함을 들어왔던 절재공 할아버지외에 또 다른 시조가 계셨는가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 문중의 격동과 변화 속의 역사를 어떻게 헤쳐 나왔는지도 배우게 되었다.
 김영철 강사님의 <순천김씨약사>강좌 시간 역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시간은 고려 때 시조 할아버지에서부터 조선 중기까지 우리 문중과 집권세력의 관계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계유피화'로 인해 절재공파를 멀리 해야만 했던 다른 파 문중들의 현실적인 사정을 표현하려 쓰신 인지상정이란 단어는 강의가 끝난 뒤에도 유달리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었다.
 피비린내나는 정치 권력의 투쟁 때문에 가족에게마저 등돌림당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절재공 후손들의 슬픔이 내 마음에까지 전해왔다.
 그 외에도 우리 집안의 대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던 김동택강사님의 <사례에 대해>강좌와 지방사와 문중의 역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던 조원래학장님의 강의, 보다 큰 사람이 되도록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강의해주신 박종렬 교수님의 강의 모두 옛 말씀 그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번 교양강좌는 내용 면에선 나무랄데 없이 근사한 수업들이었다.
 강사님들도 열과 성을 다해 열강을 하시고 친절히 질문에 답해주셨으며 그 덕분에 후손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이란 소중한 선물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다만 시설과 장비의 부족으로 시청각매체등을 충분히 활용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다.
 끝으로 가르침을 주신 모든 강사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순천김씨의 후손들도 많이 참가해 나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너네 본관은 어디니?”
 “순천이야, 순천 김.”
 “정말? 참 들어보는 데?”
 “.....”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두번 들어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받으면 난감하고 당황하게 된다. 정확하게 알아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알려고 해도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큰아버지께서 조상님들 중에 김종서장군이 있다고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다닌 적은 있지만 더 이상 알 수는 없었다.
 이제 대학생으로서 그 동안 나로부터 묵시되어왔던 '나의 조상'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왔다고 생각되어서 종친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일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동안 우리 가족과 몇 명의 일가만을 알고 있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다. 이 기분을 이끌고 시조 할아버지께 인사를 하러 갔다. 정중히 절을 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다들 무언가가 내재되어 보였다. 아마 21세기를 살고 있는 손자가 이렇게 컸다고 보여드리고 자랑도 하고 싶었을지도 몰랐나 보다.
 우선 강의라는 어색하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강의라기 보다는 나의 조상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라 해야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수많은 시간이 3일 동안 계속 되었다. 그 중에서도 나에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다. '문중의 역사와 지방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말씀하시는 교수님의 열렬한 역사 이야기였다. 정말 그 내용을 여기에 다 기술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내가 지금까지 초·중·고등 교육을 받으면서도 주입식을 배워 온 역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나라의 역사가 소수의 지배세력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과 그 역사를 아무런 생각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나에게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의 역사는 바로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 진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지 못하였을까. 역사는 집안의 역사→마을의 역사→교장의 역사→지방의 역사→나라의 역사→민족의 역사→세계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라의 역사를 알기 전에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집안의 역사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서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 감이 들어서 아쉬웠다.
 조상님들의 발자취를 찾아가면서 잘못된 역사를 다시 잡아가는 우리의 종친을 보았을 때 더욱더 자부심이 생겨났다. 역사드라마에서 절재공 할아버지의 잘못된 배역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질 수 있고 역사를 다시 쓰게 하는 놀라운 힘을 보았을 때, 자신들의 조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거짓 역사가 참이 되어 관념화되었을 텐데 거짓을 고치는 일을 했다는 것에 어느 누가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 역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나의 조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아갈려고 노력하는 손자가 되고 싶을 따름이다.
 종친회에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면 나의 역사적 반환점인 이번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가하고 싶고, 다른 종친들도 많이 참여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간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나는 뚝뚝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절재공 김종서 할아버님의 21대손이다.”라고 말이다.

順天金氏 壬辰亂功臣 遺史誌

國家의 興亡은 國民覺醒과 各氏族의 自覺에 따라 基因되며 爲政者에 統治力量의 道德性에 따라 盛衰가 沈浮되고 國際社會는 弱肉強食과 適者生存이 自然攝理에 좇아 形成되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는 開國以來로 數多한 外憂內患을 겪었지만 壬辰倭亂의 七年戰爭보다 悽慘한 兵禍는 없었다. 壬辰亂 當時에 執權勢力들은 私利私慾에 血眼이 되어 百姓을 榨取하고 賣官賣職에 汲汲한 나머지 軍律은 홀어지고 國家를 防禦함에 無秩序하게 無防備狀態에 놓여 있었고 城壁은 허물어지고 武器는 녹슬어 있었다.

이 때 日本은 幕府政權이 霸權爭奪 戰爭을 벌여 日本天下를 統一한 豊臣秀吉(도요토미히데요시)이 關白(간바쿠)의 地位에 앉아 征服을 의치며 三十萬大軍을 모아 大陸侵攻의 侵略戰을 일으켰으니 이것을 壬辰倭亂이라 한다.

壬辰倭亂의 慘狀 가운데 우리 民族이 奴隸로 팔려간 숫자는 十萬名이 넘었고 이 戰爭中 倭兵들이 베어간 朝鮮人의 귀가 十二萬六千餘개 이고 코가 二萬餘개를 헤아린다는 것은 잊을 수 없는 悲慘한 歷史的 事實이라 하겠다. 이 時代에 살아 온 우리 祖上들은 全國各地에 散居하면서 各己自己 位置에서 本 대신 喪·갈을 잡고 義兵을 일으키고 義兵에 合流하여 先祖任의 自己 高堂을 守護하기 爲해 倭寇를 掃蕩하고 물리치는 싸움에 목숨을 草芥같이 던지는 盡忠報國으로 祖國守護의 大偉業을 成就하고 倭敵을 擊退하는 勝戰의 歷史를 남겼으니 위대하고 崇高한 우리 先

祖의 精氣는 燦然하다 양으리요!

壬辰亂에 參戰한 順天吾金의 先祖任 가운데 二十餘분이 宣武原從功臣과 扈聖原從功臣으로 勳封되었고 倡義錄 節義錄 等 各地方 事蹟誌에 謄載되어 있는 諱卿을 볼 수 있다. 至今 우리는 日帝의 侵略으로 말미암아 庚戌國恥(西紀1910年)를 恨歎하고 強大國의 強占을 怨望하면서도 오늘날 社會는 不道德에 썩어가고 政治는 黨利黨略에 휘말려 國力集大成을 外面하고 있다. 이런 素地위에서는 先進國이 되겠다는 所望은 實現할수 없다.

壬辰倭亂때 우리 先祖들이 오직 國家를 守護하기 爲해 목숨을 바친 그 精神은 崇高하고 強靱한 民族情氣였다. 先祖任의 거룩한 民族魂을 오늘에 되살려 그 思想과 그 理念을 繼承하는 後孫들이 되어 愛國하는 表象이요 護國精神을 길러 指標로 삼아야 할 것이다.

壬辰亂에 盡忠報國하고 殉節하신 英靈과 功勳을 세우신 祖上任에 對하여 우리 後孫들은 敬虔한 마음으로 追慕하고 氏族的인 名聲이 永久토록 傳해지기를 所望하며 遺德과 偉業이 子孫萬世에 龜鑑이 되기를 바라며 尊靈을 慰安하여 偉大한 功勳을 顯彰하고자 順天金氏 壬辰亂 遺史誌를 記述하여 後世에 밝게 傳하리라.

西紀2001年 辛巳 盛夏

橫城公派 宗會長 榮熙 謹識

救國에 앞장선 자랑스런 順金人物

壬辰亂關聯勳封功臣一覽

1. 壬辰亂勳封功臣一覽은 壬辰亂功臣錄에 宣武原從功臣과 扈聖原從功臣 倡義錄 節義錄 事蹟誌 順으로 謄載하고 甲子譜 行蹟에 參考하여 收錄함.
2. 功臣錄一覽에 收錄이 漏落될 수 있으니 다음에 收錄토록 하고 紙面關係로 族譜에 收錄된 壬辰功勳 行蹟의 다른 行蹟은 世德錄 및 族譜를 參照하기로 한다.

壬辰功臣錄

- 參議公 諱 有溫의 六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五代孫 諱 玉 字 白溫 中宗 三十八年 癸卯生(1543~1593) 宣祖 二十六年 癸巳年에 殉節 享 五十一歲 武科 通訓大夫 行 彥陽縣監 贈 通政大夫 兵曹參議 公은 每事 公正 忠直하고 文武에 有能하고 壬辰亂時 金鶴峰(誠一)과 같이 戰功을 세우고 晉州 측성루 戰鬪에서 殉節하였다. 事蹟은 尙山誌 壬辰功臣錄에 謄載되어 있음 宣武原從一等功臣勳封
- 忠貞公 諱 有讓의 玄孫 諱 嗣成 橫城公의 曾孫 諱 應河 字 天一 號 忍心齋 生卒年月日 未詳 贈 嘉善大夫 兵曹參判 公은 辛卯年(1591) 金東崗 張旅軒 等과 講學하고 金剛門에 題名한 墨迹이 至今도 남아 있음. 壬辰亂時 子姪과 함께 慶州를 비롯하여 嶺南各地에서 倭兵을 掃蕩하고 큰 功勳을 세웠다. 事蹟은 倡義錄 壬辰錄 白尙巖日記 月城誌 等に 실려있고 遺稿가 있으며 慶州 皇城公園에 事蹟碑가 있음. 宣武原從二等功臣 扈聖原從三等功臣에 勳封
- 典書公 諱 乙財의 五代孫 諱 湘 號 沙月公의 孫 諱 德男 字 士述 明宗 六年 辛亥生(1551~1594) 宣祖 二十二年 甲午 四月十三日 殉節 享 四十三歲 贈 通政大夫 掌隸院 判決事 公은 壬辰亂時 義兵을 일으켜 큰 功을 세우고 殉節하였다. 事蹟은 壬辰功臣錄 倡義錄에 있음.
- 正郎公 諱 有恭의 八代孫 諱 安吉 求禮縣監公의 七代孫 諱 廷允 字 國信 宣祖 五年 壬申生(1572~卒年月日 未詳) 訓練院 判官

- 公은 壬辰亂時 많은 功을 세워 節義를 기리는 鐵碑가 統營에 있음. 事蹟은 節義錄 海南邑誌 享 龍淵祠 宣武原從二等功臣 勳封
- 正郎公 諱 有恭의 八代孫 諱 安吉 求禮縣監公의 七代孫 諱 廷彥 字 國甫 生卒年月日 未詳 行 軍資主簿 公은 壬辰亂時 많은 功을 세웠다. 事蹟은 湖南節義錄 邑誌 享 龍淵祠 宣武原從二等功臣 勳封
- 參議公 諱 有溫의 六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五代孫 諱 允明 字 守愚 號 松圃 仁宗一年 乙巳生(1545~卒年未詳) 忌一月八日 安陰縣監 公은 壬辰亂時 弟 東籬公과 같이 文書를 맡아 傳達하고 많은 功을 세웠음. 事蹟은 壬辰功臣錄 倡義錄에 실려 있음. 扈聖原從一等功臣勳封
- 忠貞公 諱 有讓의 玄孫 諱 嗣源 尙衣院正公의 曾孫 諱 忠國 字 汝誠 中宗 三十八年 癸卯生(1543~1608) 宣祖 四十一年 卒 勳節校尉 公은 壬辰亂時 二男 泳과 함께 郭再祐將軍을 따라 火旺城을 守備하고 많은 功을 세웠다. 事蹟은 倡義錄 壬辰功臣錄에 실려 있음. 宣武原從二等功臣 勳封
- 參議公 諱 有溫의 五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玄孫 諱 汝吻 字 士秀 號 畏庵 明宗 三年 戊申生(1548~1592) 宣祖 二十五年 壬辰 四月二十八日 殉節 文科 壯元 通政大夫 義州牧使 贈 純忠積德兼 義輔祚功臣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順昌府院君 諡號 壯毅 公은 壬辰亂時 特採되어 參戰 忠州 달천 戰線에서 申砮將軍과 함께 殉節하였다. 行蹟은 東海名臣錄 壬辰功臣錄에 있음.
- 參議公 諱 有溫의 六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五代孫 諱 湑 字 冠玉 號 北渚 宣祖 四年 辛未生(1571~1648) 仁祖 二十六年 戊子 閏三月五日卒 享 七十八歲 大臣輔國 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昇平府院君(行蹟과 勳業이 많아 族譜世德誌에 參照) 公은 壬辰亂時에 많은 功을 세웠음. 扈聖原從三等功臣勳封

<4면에 계속>

- 藍浦公의 後孫
諱 孝立 生卒年月日 未詳
公은 壬辰亂時 宣祖義州 播遷時에 弟 梯立公과 같이 白衣從事하고 王駕를 扈從한 功勳을 세웠다.
事蹟은 壬辰功臣錄에 있음.
扈從原從三等功臣 勳封
- 忠貞公 有讓의 五代孫 諱 嗣成 橫城公의 玄孫
諱 弘燁 字 乃浩 生卒年月日은 未詳
公은 壬辰亂時 父親 忍心齋公의 命을 받고 그 地方 人들을 說得하여 義兵에 參與토록 하고 谷山島山戰鬪에 나가 큰 功勳을 세우셨다.
事蹟은 倡義錄 壬辰錄 月城誌에 있고 慶州 皇城公園에 事蹟碑가 있음.
- 參議公 諱 有溫의 六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五代孫
諱 允安 字 而靜 號 東籬 明宗 十五年 庚申生(1560~1622) 光海 十四年 壬戌 五月二十五日卒 享 六十三歲
文科 通政大夫 大邱府使 歷任
公은 壬辰亂時 義兵에 參與하여 文書 等을 傳達하여 큰 功을 세웠음.
事蹟은 倡義錄에 실려있음. 安東 花川書院에 配享
- 參議公 諱 有溫의 六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五代孫
諱 允思 字 而得 號 松陰 明宗 七年 壬子生(1552~1622) 光海 十四年 壬戌 七月二十六日卒 享 七十一歲
進士金泉道察訪
公은 壬辰亂時 兄 允明과 같이 많은 功을 세웠음.
事蹟은 倡義錄에 실려 있음.
- 忠貞公 諱 有讓의 五代孫 諱 嗣昌 監察의 玄孫
諱 復興 字 景言 號 谿谷 明宗 一年 丙午生(1546~1604) 宣祖 三十七年 甲辰 十二月十三日卒
朝奉大夫 行 義禁府事西部主簿
公은 壬辰亂時 錦山戰鬪에서 權標將軍과 같이 義兵에 參與하여 큰 功을 세웠다.
事蹟은 龍城誌 湖南節義錄 儒賢錄 三綱錄 湖南誌 雲水誌 等에 실려있고 南原玄州書院 錦山 金谷祠에 享祀
- 參議公 諱 有溫의 五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玄孫
諱 琮 字 宗玉 中宗 二十八年 癸巳生(1533~1593) 宣祖 二十六年 五月二十三日卒
通訓大夫 司憲府掌令
公은 壬辰亂時 禹性傳과 義舉하여 많은 功을 세웠음.
事蹟은 江都日錄에 실려 있음.(族譜에서 拔萃)
- 節齋公 諱 宗瑞의 六代孫
諱 秀彥 字 士美 號 養眞 生卒年月日 未詳 忌 三月二十八日
贈 通政大夫 戶曹參議
公은 壬辰亂時 큰 功을 세워 壬辰原從功臣으로 勳封되어 禮賓寺 直長에 재수받고 癸酉被禍로 先원이 있어 받지 않았음.(甲子譜에서 拔萃)
- 參議公 諱 有溫의 五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玄孫

- 諱 協 字 吉甫 號 忠孝堂 明宗 二十五年 丙午生(1546~1638) 仁祖 十六年 戊寅 一月四日卒 享壽 九十三歲
通訓大夫 惠民署 主簿
公은 壬辰亂時 불 화살을 發明하여 戰果를 올렸다.(甲子譜에서 拔萃)
- 參議公 諱 有溫의 五代孫 諱 元石 判事公의 玄孫
諱 汝炯 生卒年月日 未詳
武科의 宣傳官
公은 壬辰亂時 我軍의 戰力이 臨津江戰鬪에서 不利하여 강물에 投身 殉節하였음.(甲子譜에서 拔萃)
- 參議公 諱 有溫의 五代孫 諱 亨石 翊贊公의 玄孫
諱 興國 字 景仁 號 水北亭
明宗 十二年 丁巳生(1557~1623) 仁祖 一年 癸亥 三月十八日卒 享 六十七歲
文科弘文館正字 司諫院正言書狀官 外職 寧邊 淮陽 韓山 陽州 等에 郡守
公은 外職으로 郡守在任時 壬辰亂에 功이 많았다.
扈聖原從三等功臣勳封
- 藍浦公의 後孫
諱 梯立 生卒年月日 未詳
公은 壬辰亂時 宣祖 義州播遷에 兄 孝立公과 함께 王駕를 扈從한 功이 있음.
事蹟은 壬辰功臣錄에 실려 있음.
扈從原從三等功臣勳封
- 忠貞公 諱 有讓의 五代孫 諱 嗣成 橫城公의 玄孫
諱 弘燁 生卒年月日은 未詳
公은 諱 應河 號 忍心齋 公의 長子로서 父親이 命을 받아 壬辰亂時 義兵에 加擔하여 宣祖 二十五年 1592年 6月에 蚊川 會盟에 參加하여 東海岸 石邑과 羅兒谷戰鬪에서 殉節함.
事蹟은 倡義錄 壬辰功臣錄 月城誌에 실려있고 慶州 皇城公園에 事蹟碑가 있음.
- 忠貞公 諱 有讓의 五代孫 諱 嗣成 橫城公의 玄孫
諱 弘燦 生卒年月日은 未詳
公은 諱 應河 號 忍心齋公 次男으로서 父親命을 받아 兄 弘燁과 같이 壬辰 宣祖 二十五年 1592年 6月에 義兵에 參加하여 石邑 羅兒谷戰鬪에서 장렬하게 殉節함.
事蹟은 壬辰功臣錄 倡義錄 月城誌에 실려 있고 慶州 皇城公에 事蹟碑가 있음.
- 正郎公 諱 有恭의 六代孫 諱 安吉 御史公의 五代孫
諱 城 字 士亭 正德 戊辰(1508~1596) 丙申 4月24日卒 享壽 八十九歲
三陟節制使
公은 族叔 壯毅公 諱 汝物 揮下에 從軍하여큰 功을 세웠고 王事に 勤勞하여 壬辰亂時 큰 功을 세워 原從功臣에 策錄되었음.
事蹟은 功臣錄에 실려있고(族譜에서 拔萃)
- 忠貞公 諱 有讓의 五代孫 諱 嗣昌 監察公의 玄孫
諱 復震 生卒年月日 未詳
奉直郎 軍資監 直長
公은 從伯兄溪谷公의 倡義軍에 從軍하여 壬辰亂時 善山戰鬪에서 크게 立功하였다.(族譜에서 拔萃)

알리는 말씀

아 래

光復 이후 波瀾많은 半世紀餘의 激動期를 지냈습니다.

우리 金門의 中央宗親會가 正式으로 結成되어 持續的으로 活動한지도 十餘 星霜이 흘렀습니다만 우리의 父祖들께서 그 간에 이룩하신 業績들을 한 자리에 모으지 못하였습니다. 더구나 歲月의 흐름을 거스리지 못하고 年滿하신 門中の 長老들께서 幽明을 달리 하시는 어른이(한분 두분) 늘어남에 따라 그 분들의 行蹟과 記錄들이 하나 둘 忘却되거나 煙滅되어 後孫들에게 전할 길이 점점 멀어지는 듯 합니다.

晩時之歎의 感이 없지 아니하나 더 늦기 전에 아래의 각종 資料들을 一册(假稱 順金五十年史)으로 엮어 記錄으로 永久히 남기고자 하오니 各 地域宗親會나 派宗會 그리고 門中에서 保管하고 계시는 宗親이나 그 後孫들께서는 中央宗親會로 그 資料(複寫本 可함)를 送付하여 주시면 感謝합니다. 宗事를 위하여 私心없이 努力한 그 痕迹을 後孫들에게 알리어서 向後를 위한 하나의 指標를 남기고저 하는 純粹한 一念을 諒察하시어 僉宗 諸位의 積極的인 協助를 再三 付託드립니다.

1. 丁酉譜(1957年刊), 甲子譜(1984年刊)와 各派譜를 出刊하였을 경우 당시의 會議錄, 通知文 等 資料 一切
2. 各派宗會 및 地域宗親會의 發足經緯, 歷代任員錄, 爲先事業 等에 관한 資料
3. 顯祖의 墓域, 書院, 祠堂, 齋室, 亭子 等 先蹟地의 寫眞과 復元, 重修 및 管理에 관한 資料
4. 顯祖의 影幀, 教旨 等의 寫眞과 文集類 等의 出刊에 관한 記錄
5. 宗親會 및 宗會 等에서 發送한 通知文 等 記錄으로 남겨 宗親, 後孫에게 널리 알려야 할 宗事에 관련된 資料 一切

2001年 10月 日

順天金氏中央宗親會
順金五十年史編纂委員會

黑石山과 芳春亭

김종헌(金宗煥)

〈南隱公 16대손, 필명 金宗宣, 호 芳村, 수필가〉

시월 상달 초월홀의 달이 휘영청 밝았다. 사방이 고요에 잠긴 이슬한 밤, 수양대군이 수하 장정 몇 사람을 거느리고 절재(節齋) 김종서(金宗瑞)공의 집을 찾아왔다. 절재공의 만아드님 승규(承珪)공은 아버지에게, 마당에 나가지 말고 집안에서 수양대군을 맞으시라고 여쭙었다. 어린 단종의 보위를 보호하려는 절재공과 왕위 찬탈의 야심을 품은 수양대군의 은밀한 암투를 잘 아는지라 어떤 불길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재공은 종친 어른을 맞는 예가 아니라며 굳이 뜰로 나가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이 밤중에 수양대군께서 어인 일로 누추한 소신의 집을 찾아오셨는지요?"

"예, 한밤중에 불쑥 찾아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실례인 줄 아오나 워낙 급한 일이 생겨서 왔사오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마친 수양대군은 쓰고 있던 사모뿔 하나를 짐짓 떨어뜨렸다. 승규공을 집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였다. 과연 수양대군의 계획대로 절재공은 승규공에게 안에 들어가 다른 사모뿔을 가져오라고 일렀다. 승규공은 아버지의 심부름이 내키지 않아 미적거리며 몇 발짝 떼어놓았을 때, 수양대군은 품에서 편지를 꺼내 절재공에게 건네 주었다. 절재공이 편지를 받아 달빛에 비추어 보려는 순간, 수양대군의 가복(家僕) 임운(林芸)이 품에 감추었던 첩퇴를 꺼내 절재공의 머리를 쳤다. 절재공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자 재차 가격하여 쓰러뜨렸다. 저만큼 집안으로 들어가던 승규공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아버지를 부축하려 하자 이번에는 가복 양정(楊汀)이 칼을 뽑아 승규공을 찔러 죽였다.

이 피바람처럼 처참한 사건이 1453년(단종1) 계유년 10월 10일 밤에 일어난 이른바 계유정난의 서막이다.

이때 절재공의 만아드님 승규공과 둘째 아드님 승벽(承璧)공, 승규공의 큰 아드님 만동(萬同)공과 둘째 아드님 조동(祖同)공, 그리고 승벽공의 큰 아드님 중남(仲男)공이 비명에 가셨다. 승규공의 셋째 아드님 행남(幸男)공은 젓을 먹여 길러 주던 노비에게 업혀 무주(茂朱) 친척집으로 피했다가 다시 부안(扶安)의 위도(蝟島)로 건너가 대를 이었고, 승벽공의 둘째 아드님 차동(次同)공은 숨어 살았으며, 셋째 아드님 팽(澎)공은 역시 젓을 먹인 노비의 아들이 대신 죽음으로써 천신만고 끝에 위도로 피해 숨어 살았다고 한다. 말하자면 온 집안이 썩 대밭이 된 셈이다. 우리가 역사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의 비참한 참화였다.(이후 절재공은 역적 누명을 쓰고 원혼으로 떠돌다가 실로 293년 만인 1746년[영조22]에야 가까스로 신원되어 충신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순천김씨의 씨족이 번성하지 못하고 선조에 대한 자료가 희귀한 것도 계유정난의 참화로 유실된 때문이라 한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한 이 비보를 들은 남원부사 김효우(金孝友)공과 아우 김효손(金孝孫)공은 족조(族祖) 절재공이 순절한 한양을 향해 통곡한 후 관직과 가산을 정리하고 땅끝 고을 해남으로 내려와 흑석산(黑石山) 깊은 산골에 은둔하였다. 흑석산 한가닥이 남으로 살짝 내리뻗어 다시 쇠금자(金)형으로 우뚝 솟아난 발우산(鉢盂山) 자락에 자리를 잡고 순천김씨의 만세터를 닦으니 여기가 바로 그 이름도 아름다운 방춘리(芳春里)이다. 발우산은 사발을 엮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쇠금자형 같기도 하여 붙여진 이름인 듯하다. 쇠금자형 산 밑에 순천김씨 집성촌이 생겼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이 점지해 준 천혜의 땅이 아닌가 한다. 다만 민족상잔의 6·25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마을이 아직도 완전 복구되지 않은 채 아물지 않은 상처인 양 군데군데 빈 집터가 남아 있어 안타까운 여운을 드리우고 있다.

남은공은 마을 뒤를 빙 둘러 대나무와 동백나무, 소나무와 차나무 등을 심어 충절을 상징케 하고, 절재 김종서공을 은밀히 모시고 배향했다. 그 후 세상이 좀 잠잠해지자 고조인 양경(襄景) 김승주(金承漣)공을 함께 배향했으리라 짐작된다.(기록상으로는 3백여년 후에 후손들이 배향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확실치 않음) 김승주공은 아호가 월담(月潭)이고 시호가 양경이며 절재공과 같은 항렬로 36년 먼저 태어나셨다. 고려 말엽인 1347년(제29대 충목왕4)에 태어나 1423년(조선 세조6)에 좌의정을 지내고 이듬해 78세로 서거하셨다. 처음 이름은 을보(乙寶)였으나 나라에 큰 가뭄이 들면 공(公)을 기우관으로 하여 기우제를 올리면 많은 비가 내렸으므로 '때맞추어 오는 비' 주(霽)자를 넣어 '승주'란 사명(賜名)을 내렸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문무를 겸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덕을 지니셨음을 알 수 있다. 1404년(태종4) 58세 때 이방원 근술 개국공신 회맹록(李芳遠謹率開國功臣會盟錄) 4등훈에 등재되고 많은 하사품을 받았다. 1418년(태종18) 72세 때 세종 등극 진책관이 되시고, 서거하셨을 때에 세종대왕께서 교서를 내려 '갑주유로왈양 유의 이제왈경(甲冑有勞曰襄 由義而制曰景; 국가방위에 공을 이루고 정의롭게 국난을 극

복하였으므로)'이라 하여 '양경(襄景)'이란 시호를 받았다.

태종 원년(1401) 54세 때에는 태조가 함흥에서 환궁하여 현수하는 막사 중앙 기둥을 굽고 튼튼한 것으로 바꾸게 해서 태종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공으로 금은 1백냥의 상금을 받고 대광보국 승록대부 좌의정의 대배(大拜)를 받으셨는데, 선견지명의 지혜도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일화이다. 양경공은 족제(族弟)인 절재공을 사랑해 임종 때 평소 즐겨 읽던 역경(易經)과 병서(兵書) 및 보검 등을 주면서 나라일을 부탁했다는 일화도 있다. 양경공이 78세로 임종하셨을 때 절재공은 42세로 사헌부 지평이란 벼슬에 제쳤다. 양경공이 기우관으로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인품이 참으로 심중 경건하고 하늘을 감동시킬 만한 열성과 정성을 지닌 신실한 분이셨으리라고 생각된다. 진실 경건함과 경천애인(敬天愛人)의 덕망있는 분이 아니라면 하늘을 감동시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토록 훌륭한 선조를 고향마을에 가까이 모시고 살았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그저 높은 벼슬을 하신 선조 할아버지처럼 하고 무심히 지내왔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지금도 자세한 내력은 잘 알 수 없으나 단편적이나마 묘정비(廟庭碑)와 신도비(神道碑) 등으로 아녀자들까지 대충 알게 되었으니 다행한 일이다.

고조 양경공과 족조 절재공을 지극히 존경하여 비밀히 배향했던 남은공[金孝友]께서 돌아가신 후, 자손들이 북저(北渚) 김류(金澣)공을 함께 모시고 그 사당을 삼상사(三相祠, 1784년)라고 이름지었다. 세 분 재상을 모신 사당이란 뜻이다. 북저 김류공은 양경 김승주공의 7대손으로 절재공보다 188년 뒤인 1571년(宣祖4)에 탄생하신 분이다. 인조반정의 일등 공신이며 영의정을 세 번이나 지낸, 벼슬로는 순천김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다. 절재공만큼 역사적 인물로 추앙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일인지하만인지상(一人之下萬人之上)의 자리에 세 번이나 오르신 출중한 인물이셨다. 광해군의 패륜적 행위인 폐모론(廢母論)을 반대하다가 탄핵을 받아 낙향하기도 하고, 권신 이이첨(李爾瞻)과 맞서 싸웠으며 1623년(인조 원년) 53세에는 목숨을 걸고 인조반정을 일으켰었다.

인조반정 때 팔괄한 성품인 이괄(李适)에 비해 우유부단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인조의 생부 정원군(定遠君)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하는 것을 반대하다 과격당한 일 등으로 보아 강유겸전(剛柔兼全)의 큰 그릇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북저공은 시문(詩文)과 서법(書法)에도 뛰어났으며 양경공과 같은 78세(1648년, 인조26)의 천수를 누리셨다. 저서에는 <북저집(北渚集)>과 <해동명신록(海東名臣錄)>이 있고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위에 기록한 세 분 양경공, 절재공, 북저공을 모신 삼상사 옆에 강당을 겸한 방춘정(芳春亭)을 세우고 1919년에 사당을 증정한 후 방춘서원(芳春書院)으로 개칭했다. 남은공이 계유정난을 피해 흑석산 밑 방춘골에 은거한지 무려 466년만의 일이었다.

또 여기서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북저 김류공의 부친이신 김여물(金汝沕, 1548~1592)공이다. 30세에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고 의주목사 재임시 서인(西人) 정철(鄭澈)의 당인으로 몰려 파직, 투옥되었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왕의 특명으로 충주 방어에 나섰다. 새재(鳥嶺)의 지세를 이용하여 방어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신립(申唼) 장군이 이를 듣지 않아 충주 달천(達川)을 등지고 배수진을 쳤다가 왜군을 막지 못하고 탄금대에서 신립과 함께 투신 자살하였다. 나라를 위해 몸바친 공으로 충신의 반열에 올라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나, 공의 아까운 나이 45세였다. 대장부는 청산 어느 곳에도 뼈를 묻을 수 있는 것이며(是處青山可埋骨), 반드시 고향에서 죽는 것은 아니라는 소동과(蘇東坡)의 시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김여물공이 좀 더 오래 살아 역사의 한 장을 찬란히 장식했다더라면 우리 순천김씨 가문에도 보다 자랑스러운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백년이 가고 천년이 흘러도 흑석산은 변함없이 침묵 속에 의연히 서 있다. 오고가는 것은 사람이요 흐르고 변하는 것은 인생이다. 이제 방춘서원[芳春亭]의 삼상사(三相祠)에는 남은공과 망미당공이 함께 배향되어 오현(五賢) 선조분이 모셔져 오현사(五賢祠)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많은 宗親들의 意見이 五賢선조분을 모시는 것보다 본래의 뜻대로 三賢祠로 復元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意見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元來 三相祠는 李朝末大元君당시 서원철폐령을 내려 全國書院이 거의 철폐되었으나 三相祠안은 화를 면해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왔고 全南道指定文化財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歷史的 背景을 훼손하지 않고 앞으로 後孫들은 잘 保存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우리 門中의 자랑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全南道 指定文化財

大同譜 收單에 관한 말씀

금번 修譜에 있어서는 宗派單位 작업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收單작업 또한 各派에서 천거된 분이 위촉받아 수고하고 있습니다.

팔월 말경 草稿가 印刷에 들어갈 예정이오니 아직 접수되지 않은 宗親께서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收單위원과 연락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여의치 않을 시는 중앙총친회로 연락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앙총친회(中央宗親會)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국 종친(宗親)들의 현주소(現住所)가 많이 누락(漏落)되고 변경(變更)되어 종보(宗報)의 발송등 일반 종사(宗事) 운영과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총친회에서는 새로운 2001년을 맞이하여 전국 종친(宗親)들의 주소록(住所錄)을 재정비(再整備)코져 하오니, 이미 연락을 드린바와 같이 각 지역 종친회(各地域 宗親會), 파종회(派宗會)의 임원(任員)에서 누락(漏

落)되었던 종친과 특히 성년(成年)이 되어 분가(分家)하고 새로이 일가(一家)를 창립(創立)하고, 다함께 힘을 합쳐 종사(宗事)를 도모(圖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탓으로 이름은 한자(漢字)로 표기(表記)하여 주시되 주소(住所)와 전화번호를 함께 통보하여 주시고, 전화(02-400-2501~2)나 팩스(02-400-2505)로 연락을 주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年會費 수납안내

중앙총친회는 임원 종친(宗親) 및 각세대 종친(宗親)들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독지종친(篤志宗親)들의 찬조금 등 종친(宗親)여러분의 협조로 운영됩니다.

제12기(2000.10.1~2001.9.30) 년회비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총친회는 대동보 편찬이라는 막중한 종사(宗事)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종사(宗事)운영을 위해 종친(宗親)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회비 납부)를 당부 드리오며, 하시는 사업의 발전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회비납부액	회장	년	200만원이상
	부회장	년	50만원이상
	운영위원	년	20만원이상
	고문 명예회장	년	10만원이상
	감사 간사 이사	년	10만원
	대의원	년	5만원
	세대당년회비	년	2만원

인라이프좌	농협	069-01-212885
	한빛은행	146-003175-02-501
	우체국	012351-02-073450
	지로번호	7637405

大田, 忠南宗親會 총회 열려

2001年度 總會를 3월18日 金星蔘鷄湯 三層 事務室에서 50餘 宗親이 參席하여 개최했다.

새로 任員을 選出하고 앞으로의 進路와 運營의 改善策등의 적의없는 意見이 交換되었고 아래와 같이 任員改選이 있었다. 이에 따라 中央宗親會에서는 會長 柄鮮 宗親을 副會長으로 副會長 正雄 宗親을 運營委員에 選任하였다.

任員名單

顧問: 圭南 一貞 東賢 東澤	監事: 淳元
會長: 柄鮮	" : 喜貞
副會長: 大田 正雄	總務: 東源 (016-436-5187)
" 錦山 瑒熙	財務: 碩禧
" 保寧 志燮	
" 天安 泰淵	
" 扶餘 讚貞	

수단위원 명단(무순)

파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파별	수단위원	전화번호
목재공·절재공파	김영태	053-953-8281	익찬공파	김석윤	054-855-2943
	김용석	054-834-5686		김보연	017-556-5382 051-624-5382
	김영환	063-862-4276		김봉희	054-421-0969
	김동원	02-859-6351		김동현	041-554-1714
	김종원	02-931-4720		김하연	054-853-8334
	김달원	041-833-9450		김상목	061-532-2875
	김수용	053-357-1824		김한수	031-205-0605
	김석원	016-381-3315		김병화	02-701-3251
	김정순	062-512-4360		김재석	031-612-8921
	김왕영	041-753-1073		김남석	02-432-4028
전서공파	김병윤	031-632-3451	어사공파	김재숙	02-433-1581
	김문식	031-632-3450		김재희	061-536-9646
	김일량	031-632-3432		김정희	011-9639-3757
	김남수	031-773-0761		김채덕	061-532-5875
	김동성	02-916-1158		김상률	02-487-2817
	김용순	053-941-6865		김진효	061-533-3282
	김동근	054-841-2316		김백원	061-532-4941
	김문원	054-552-7275		김유동	061-884-3828
	김창로	032-873-8577		김학순	061-744-1191
	김경로			김성태	061-763-2515
관사공파	김달웅	054-532-5143	관서공파	김호채	
	김병준	054-552-3547		김덕호	061-761-6844
	김규팔	054-553-2368		김근모	061-651-9368
	김호남	054-534-8811		김종두	061-681-0376
	김용희	032-322-6216		김삼용	061-741-1479
	김정걸	054-822-3078		김종배	061-742-7835
	김석산	054-855-1495		김인승	041-933-2905
	김인업	054-535-2321		감찰공파 사무소	063-625-3662 016-651-7667
	김윤환	054-853-2974		군수공파(철연공파)	02-400-2501
	김환	054-853-2707		형성공파 사무소	016-375-3002 011-9355-2627
공파	김찬연	054-853-2642	상의원공파	김광홍	018-272-1570 02-305-1570
	김종업	054-853-2303		김어연	031-962-8968
	김동걸	054-853-2053		김동학	031-963-8852
	김종삼	054-853-9116		김규연	043-260-0909
	김규찬	054-853-2705		김상우	031-332-4708
	김현재	054-853-2502		김문연	031-676-4072
	김선환	054-853-0655		김상민	031-675-9295
	김동춘	054-853-2616			
	김상동	054-841-2415			

(대동보 편집실)

半世紀만의 祖上 돌보기

天高馬肥의 季節 仲秋節을 몇일 앞둔 지난 九月二十四日 京畿道 漣川郡 長南面 元堂里에 所在한 判事公(諱 元石)의 五代孫이며 牧使公(諱 粹瓘) 曾孫인 諱 鏞公의 墓域에서는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鍾植會長을 비롯하여 牧使公派 直系孫 多數가 참석한 가운데 贈 嘉善大夫 諱 鏞公 通政大夫 諱 慶恒公 通德郎 諱 世標公의 墓前에 새로이 碑石을 세우니 실로 반세기만에 祖上에게 禮儀를 갖추어 늦은감은 있으나 실로 順天金氏 門中 宗事に 慶事가 아닐 수 없다.

十年이면 江山이 變한다는데 어언 변하기를 다섯 번이나 넘길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숙명적인 사연이 있었다.

6·25전까지만 하여도 秋季時享을 지내 모시던 祖上의 墓域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戰爭의 소용돌이 속에 行政의 管割이 6·25 전에는 長湍郡 北面으로 通行이 自由로웠으나 休戰 協定 당시 상당부분의 長湍郡 일대가 北의 手中으로 넘어가고 겨우 先代의 墓域을 除外한 一部分이 我軍이 차지할 수 밖에 없었던 곳이다.

또한 最前線에 位置한 까닭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간인 出入이 自由롭지 못한 狀態이었으니 莎草할 엄두를 못하다. 直系後孫 諱 鏞公의 十一代孫 龜淵 宗親이 巨金을 出捐 墓域을 말끔히 整備하여 세우니 順天金氏 全宗親의 龜鑑이며 인근 住民의 稱頌이 藉藉하였다.

회비입금현황

(2001.7. 1~2001.8. 30)

일자	성명	주소	일자	성명	주소	일자	성명	주소
고문년회비			7/24	김현만	성북구 정릉2동	8/ 3	김활용	울산시 남구 신정2동
5/11	김우영	서울 성동구 자양3동	7/24	김은식	황산면 춘정리	8/ 3	김동규	대구시 중구 대신동
운영위원년회비			7/25	김동원	경주시 외동읍	8/ 3	김상민	구미시 향산동
5/11	김인섭	부산시 부산진구 범전동	7/25	김남석	서울 중랑구 중화3동	8/ 3	무 명	1건
7/24	김재문	대구시 달서구 신당동	7/25	김상용	인천시 계양구 간석동	8/ 3	김광원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이사년회비			7/25	김순원	대전시 서구 삼천동	8/ 3	김수종	오수면 둔덕리
7/24	김상첨	(033)455-2935	7/26	김진오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8 /4	김동열	경북 의성군 안계면
7/25	김길용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	7/26	김병화	충북 제천시 송학면	8 /4	김봉각	용인시 김량 장동
8/ 2	김상기	광주시 금남로 4가	7/26	김도훈	강원도 청원군 동송읍	8/ 8	김상태	서울시 중구 신당6동
9/15	김석균	하리면 우곡리	7/26	김순홍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8/11	김동영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대의원년회비			7/26	김덕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비산2동)	8/13	무 명	1건
7/23	김동이	울산시 북구 면암동	7/26	김취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8/13	김영원	전북 익산시 황동면
7/23	김동춘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7/26	김병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8/14	김상현	울산시 중구 반구1동
8/28	김명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7/27	김원주	강원도 정선군	8/16	김상호	경북 성주군 금수면
세대당년회비			7/27	김종옥	강원도 인제군	8/17	무 명	1건
7/ 2	무 명	1건	7/27	무 명	2건	8/17	김인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7/ 4	김태순	경북 안동시 임동면	7/27	김송수	인천시 남구 도화동	8/17	이차선	정회사
7/10	김상민		7/27	김범석	서울 송파구 문정동	8/18	김현진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10	무 명	1건	7/28	김연수	정읍시 해안면	8/20	김현수	정읍시 신의면
7/10	김동원		7/28	김종삼	강원도 인제읍 원대리	8/21	김상표	부산시 수영구 광안4동
7/16	김종태	대구시 달서구	7/28	김동한	경북 영주시 기흥1동	8/23	김정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20	김영복		7/28	김정균	경기도 부천시 원미상동	8/23	김학연	가좌 진구
7/20	김사연	충북 명동 향산	7/28	무 명	2건	8/25	무 명	1건
7/20	김민영	대전시 중구 유천	7/28	김민희	서울 중계본동	8/27	김동경	고양시 백석동
7/20	김병문	충남 마산시 염치읍	7/28	김사연	서울 구로구 온수동	8/29	김진연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7/21	김형균	원주시 원동	7/28	김대호	전남 해남군 계곡면	8/30	김창김	전북 부안군 계화면
7/23	김남술	전남 해남군 황산면	7/28	김봉권	전남 해남군 계곡면	8/30	김동희	서울시 은평구 불광3동
7/23	김진수	전남 해남군 산이면	7/30	김정희	경북 경주시 황오동	8/30	무 명	1건
7/23	김완석	광주시 광산군 월계동	7/30	김준재	이천시 대월면 군량1리	8/31	김상용	익산시 금마면
7/23	김정웅	전북 익산시 금마면	7/30	김세덕	인천시 부평구 부평4동	9/ 1	김국영	충남 금산읍
7/23	김동필	1건	7/31	김길홍	순천시 병량면 미사리	9/ 1	무 명	1건
7/23	김용진	대전 서구 내동	7/31	김중희	광주시 서구 농성동	9/ 1	김재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7/23	김영환	충남 보령군 주교면	7/31	김진수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9/ 1	김재동	용인시 시흥읍
7/23	김규연	경기 일산시	7/31	김동석	충남 금산 남이면	9/ 3	김광석	인천시 부평동
7/24	김정균	용동면 용서리	8/ 1	김범태	전남 광양시 인서리	9/ 3	김안석	해남 계곡 여수리
7/24	김석희	부산진구 부전1동	8/ 1	김우정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9/14	김병기	영도구 동삼1동
7/24	김태득	부산진구 동대구 명륜2동	8/ 2	김구남	울산시 울주군 범서면	9/19	김동석	전북 진안군 성우면
7/24	김광연	경기도 안성시 봉남동	8/ 2	김규팔	문경시 산양면	9/19	김동석	전북 진안군 성우면
7/24	김수연	인천시 서구 석남1동	8/ 2	무 명	3건	9/29	김병달	고양시 일산구 일산3동

“알려드립니다”

입원 및 세대당 회비를 납입하실 때는 반드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납입하고도 주소나 전화번호가 없어 입금자 명단에 등재하지 못한 종친이 다수가 되어 재삼 강조드립니다. 연회비를 입금하지 않으신 종친께서는 계속 지로용지를 보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종사(宗事)운영과 대동보 편찬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종친 여러분의 정성어린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칭찬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림같은 집”



한화종합화학이 펼쳐 드리는 행복한 인테리어 세상으로 들어 오세요!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행복한 생활을 만듭니다. 고품격의 토탈 인테리어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가꿔 온 한화종합화학-그림같은 행복이 느껴지는 그 자리마다 인테리어 名家, 한화종합화학이 있습니다!

■ 행복이 느껴지는 바닥재 - 참숯나라·금빛세상·골드타일 ■ 행복으로 통하는 창과 문 - 흡사시·발코니아·홀도어 ■ 행복 업그레이드 장식재 - BODAQ·하비스·탐버드